

베트남, 민간기업육성기금 설립 활발

- 최근 베트남에서는 민간기업 대상의 융자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설립이 잇따르고 있으며, 이는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 민간기업의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- 그러나 민간기업측은 아직 ‘담보가 요구되는 등 심사가 엄격하다’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며, 은행측의 심사 체제도 미숙하여 융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.

□ 기금 설립 현황

- 베트남 최대의 상업은행인 베트남 외국무역은행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 대상의 융자를 위해 5천억 dong(약 40억 엔, 1 dong=0.0008엔)의 기금을 설립하였음.
- 베트남 농업·지방개발은행도 농업분야에서의 중소기업대상 융자를 시작하였고, 베트남 공상은행은 금년중 2천억 dong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기금을 설립, 특히 수출기업융자 융자를 예정하고 있음.
- 중소기업이란 자본금 10억 dong 이하, 종업원 300명 이하의 기업을 말함.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약 6000社에 이르는 국영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이며, 각 은행이 설립하는 중소기업 대상 기금은 주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.
- 각 은행이 민간기업 대상 융자에 힘을 쓰는 이유는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민간기업이 국영기업 및 외자기업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임. 지난해 공업생산금액에 차지한 민간기업 비율은 23.6%이며, 국영기업(41%), 외자기업(35.4%)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. 민간기업의 신장률은 20.3%로 늘어나 국영기업(12.7% 증가), 외자기업(12.1% 증가)을 크게 상회하였음.

□ 정책금융기관 역시 민간대상 자금공급

- 이달 상순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공동으로 민간중소기업대상 기금인 '메콩 기업 기금'을 설립. 동 기금 규모는 1,600만 달러이며, 베트남 등 3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함.
- 개발지원기금(DAF)은 1999년 7월 설립 당시부터 인프라 정비 등 중장기 용자 이외에도 민간기업 대상의 용자를 취급하고 있음.

□ 민간기업 설립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용자 증가는 부진

- 2000년 설립된 신회사법이 시행되어 최저 자본금제도를 철폐하는 등 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기업의 설립건수도 늘어나고 있음.
- 2001년 한해동안 약 3만 5,000개 사가 설립되는 등, 민간기업의 설립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, 용자가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다고는 할수 없음. 베트남 외국무역은행의 민간기업대상 용자 실적은 1,200억 dong 정도로, 기금 전체의 25%에 머물고 있으며, 개발지원기금도 민간기업 대상 용자는 전체의 20%에 그치고 있음.
- 이와 같은 용자부진의 이유는 은행의 심사능력 부족 및 민간기업의 담보 부담 때문임. 지금까지 은행은 국영기업 중심으로 용자해 왔기 때문에 불량채권화 되어도 정부 보전이 뒷받침되어 왔음. 때문에 사업 및 기업 내용을 심사, 리스크 계산 능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. 또한 많은 국영기업이 무담보 용자를 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기업에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담보를 징구하도록 하고있어 민간기업측의 부담이 되고 있음.
- 이에 대해 각 은행은 민간기업 대상 용자의 성패는 종래의 체질 탈피라고 보고, 세계은행 자매기관인 국제금융공사 등의 협조로 금융심사 기법 등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, 해외금융기관의 협력을 받아 심사능력 향상에 힘을 쏟기 시작하고 있음.